

#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

**일 시** 2023. 12. 11.(월) 14:00 ~ 16:00

**장 소**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

**주 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아산 맞춤형 정책 제안

**주 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 개요

- 일시 : 2023. 12. 11.(월) 14:00 ~ 16:00
- 장소 :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
- 주제 :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아산 맞춤 정책 제안
- 주최 : 충청남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
- 참석예정 : 100여명(도의원,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진행 흐름

시간	내용	비고
< 개회식 >		
14:00~14: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 김충훈 전문위원
14:05~14:10	05' 내빈소개 및 개회사	안장현 의원
< 토론회 > ※ 진행 : 안장현 의원		
14:10~14:30	20' 주제 발표	· 발제자 : 윤평호 부장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14:30~15:20	50' 지정 토론	· 토론자 5명(각 10분)
15:20~15:40	20' 자유 토론	· 발제자 및 토론자 간
15:40~15:55	15' 청중 토론	· 참여자 전체
15:55~16:00	5' 정리 및 폐회	· 좌장(안장현 의원)



# 목 차

## ■ 주제발표

- ▷ 2023년 아산의 주요 이슈 ..... 1  
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부장)

## ■ 지정토론

- ▷ 2023 교통·복지 정책제안 ..... 13  
강신관 (한국폴리텍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
- ▷ 2023년 아산의 주요 이슈 및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문 ..... 19  
박재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 ▷ 주민참여형 공장지붕임대 태양광발전사업 ..... 25  
김승국 (주식회사 삼성이엔지 이사)
- ▷ 청년 기업인의 시야를 통해 살펴본 경제위기 속 아산 ..... 39  
김진배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회장)
- ▷ 아산시 문화예술 정책 방향 제안 ..... 45  
송용배 (식생활네트워크 아산 대표)



#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

## ■ 주제발표

### 2023년 아산의 주요 이슈

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부장)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2023년 아산의 주요 이슈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윤평호(대전일보 부장, 행정학 박사)

## 순서

1. 개요
2. 2023년 아산의 월별 주요 이슈
3. 시사점















고맙습니다



#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

## ■ 지정토론

## 2023 교통·복지 정책제안

강신관 (한국폴리텍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2023 교통·복지 정책제안서

한국폴리텍대학 방송영상학과 교수  
강신관

1

공단근로자를 위한 교통정책

## 제안배경

- 최근 둔포, 인주, 선장등 아산시 외곽을 중심으로 한 공단이 활성화 되면서 이들 지역 근로자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아산시내에서의 열악한 접근성 및 교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기업인들이 근로자 채용의 어려움과 주거 및 이동수단 마련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들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정책 보완과 정족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아산시 공단 근로자의 주거지 조사 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아산 시민과 타지역 주민을 조사하면 아산시민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산시민들의 공단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아산시민이 아산시 공단에 근로자로 더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필요.
- 현 교통제도는 공단지역에 특화된 교통이 아닌 기존 읍, 면단위 생활거주자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출퇴근 시간 및 공단운영을 위한 순발력있는 교통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점점 줄어드는 면단위 지역 주민들 우선의 교통정책에서 공단지역 중심 교통정책에 보완적 교통복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정 책 제 안

- 아산 거점 지역에서 공단 입구간 직통 교통망 구축
  - 아산 인구밀집지역 거점 지역에서 출발하여 공단 입구까지 출퇴근 시간 최적의 출근루트 직통 교통망 구축
  - 공단 내 간선 교통은 공단내 순환 소형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등 공단지역에 맞는 앱을 이용한 이동수단 확충
- 공단 내 근로자들의 정족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필요
  - 공단 조성시 근로자들의 편리한 생활과 정족여건 확보를 위한 계획이 함께 구성되어 공단을 벗어나지 않고 공단내에서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아산시 내에 아산시민, 외곽 공단근로자들이 휴일이나 주말이면 편리한 안식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연, 문화, 여가, 스포츠 등을 누릴 수 있는 거점 문화공간 구축이 요구됨. 이는 아산시에서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

## 소 요 예 산

- 예산내용
  - 예산 산출 근거

## 제안배경

- 지하철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 65세이상 노인은 지하철 무료혜택 및 교통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기차도 평일 30% 할인된다.
- 단편적인 지하철 노선을 갖추고 있는 아산시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아산시만의 교통약자(65세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를 위한 교통복지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는 75세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무료 승차를 무제한 제공
- 아산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9,278명으로 이중 65세~70세 인구는 19,782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교통복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만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 광양시, 횡성군, 양평군, 안성, 포천
- 만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 군포시, 철원군, 제주도, 성남
- 만75세 이상 버스비 면제 : 남원시, 영천시, 대구, 강릉시, 창원시
- 노인버스 무료 승차교통비 지원 : 의왕
- 무료 대중교통 정책 추진 : 경상북도, 청송

## 정책 제안

- 전면적 65세이상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65세이상 노인 전액 버스무료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소요 예산

- 예산내용
  - 예산 산출 근거



#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

## ■ 지정토론

2023년 아산의 주요 이슈 및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

박재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2023년 아산의 주요 이슈 및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박재희

## ◆ 들어가며

- ◇ 우리는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변화에 따라 치솟는 물가 변화로 미래에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아산의 아산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 더구나 국가와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어려워지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분야 중 생애주기별 돌봄 욕구에 대한 의견 수렴이 소외되는 대표적일 수 있음.
- ◇ 왜냐면 생애주기별 돌봄 욕구를 분석하는 기준이 다양하고 돌봄의 방향도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달라 합의하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임.
- ◇ 어려운 일임에도 아산시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한 나아갈 방향의 중요성과 상황 인식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음.

## ◆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이슈 vs 시민들의 돌봄 욕구

- ◇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과 시민들의 돌봄 욕구의 목표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음.
- ◇ 아산시는 23년 10월 기준 34만 1,953명(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 내 공공종합병원이 그동안 전무하였음. 지역을 막론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의 강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도내 4개 시·군에만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어 도내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현실임. 열악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현실에 대해 의료시설의 확충 부족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가능함.

◇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에 관한 내용이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를 반영하여 건립 과정에 뚜렷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해 보임.

◇ 이에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를 반영하여 나아갈 방향으로 해야 함.

#### ◆아산시 교육경비지원 중단 이슈와 생애주기별 시민 평판의 중요성

◇ 충남교육청의 재정은 98% 이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직접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아산시의 교육경비 지원예산 교육사업비 총 9억 1천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중단이란 이슈는 단순히 아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아닌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슈였다고 할 수 있음.

◇ 아산시에 대한 브랜드 평판(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23년 10월 빅데이터 분석)은 2023년 10월 30개 시 중 9위로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음.

◇ 실제 생애주기별 시민들이 느끼는 돌봄 욕구의 브랜드 평판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내실 있는 시민 욕구 반영의 필요성과 현장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 ◆생애주기별 시민 돌봄 욕구 환경 분석을 위한 지역별 여론 수렴의 중요성

◇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2022.6.7.~6.30)분석 결과에 의하면 1순위가 경제·일자리·기업분야, 2순위가 저출산·보건·복지분야, 3순위가 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분야 였음.

◇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13~18세), 청년기(19~29세), 성인기(30~64세), 노년기(65세이상) 돌봄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적 배경을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영·유아(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13~18세) 인구의 감소, 청년기(19~29세), 성인기(30~64세) 인구의 이동변화, 노년기 인구의 증가 같은 사회적, 지역적 환경 변화의 맥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산시민들의 생애주기별 돌봄의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방법이나 의견수렴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지역별 인구변화와 연령 변화에 따른 돌봄 욕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창구와 인력이 요구됨. 아산시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년 9천명 가량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가 아산시는 상위권에 들고 있으나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지역별 인구 동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 2021년 이후 2년 동안 배방면, 탕정면, 둔포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 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원도심을 기준으로 동지역의 인구감소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음.
- ◇ 생애주기별 시민 돌봄 욕구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판단되며 ‘생애주기별 시민 욕구를 반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돌봄 이력제 도입’이라는 대책이 요구됨.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세워지길 바람.
- ◇ 아산시민 모두를 시책의 실질적 영향 범위에 둘 수 있는 보편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 해 볼 필요성이 있음.

**◆2023년 아산시 주요 이슈를 통한 나아갈 방향과 우려 1:  
지방자치의 불균형**

- ◇ 충청남도에서도 아산시는 천안시에 이어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이며 이와 관련하여 도시발전 차원에서 부상하고 있음.
- ◇ 지방자치의 균형은 이러한 도시발전 차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아산시와 아산시의 회가 균형을 이루어 소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의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다양한 시도가 요구됨.
- ◇ 도시발전의 가속화가 되는 시점에 오히려 소통과 균형이 결여된 정책, 예산 설정은 오히려 시민 돌봄 현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 ◇ 따라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소통과 균형이 결여된 정책, 예산 설정은 도시발전과 생애주기별 시민 돌봄을 제약할 가능성이 큼을 고려해야 할 것임.

**◆2023년 아산시 주요 이슈를 통한 나아갈 방향과 우려 2:  
미약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 ◇ 충남 출자·출연기관 구조 개편과 이전 결정의 지역 여론 수렴 취약은 또 다른 형식의 미약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

- ◇ 중요한 것은 협력과 전달 체계의 강화임. 협력적 거버넌스는 국가-광역-기초단체로 끊임없는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협력과 전달 체계가 필요하나 지역 여론의 수렴 취약, 기관-기관, 민간-민간 협의 부족 등 극복이 어려웠음. 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아산시 미래 발전의 긴급 과제로 판단됨.
- ◇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지역발전 확장이나 시민의 의견수렴 확대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 충청남도는 광역단체로서의 역할에 맞는; 아산시는 지자체의 역할에 맞는 지역의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고려한 발전방안과 시책 마련이 필요함.

#### ◆나오며

- ◇ 오늘 토론회를 통해 2023년 아산의 주요 이슈를 통한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한 파악의 중요성과 현황을 인지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길 바래봄.
- ◇ 아울러 오늘 도정토론회의 발표와 논의가 주로 정책의 불균형에 집중되어 있어 토론자가 고민해본 2023년 이후 생애주기별 시민들의 돌봄 욕구에 대한 파악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함.
- ◇ 첫째, 생애주기별 시민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여론 수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 둘째, 생애주기별 일상생활 지원 관련 현장 돌봄 인력 영역 확장, 셋째, 지역사회 생애주기별 돌봄 욕구 파악을 위한 콘텐츠 다변화 및 다양성 강화, 넷째, 지역사회 생애주기별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격차 해소를 제언함.
- ◇ 시간과 지면 관계상 각 세부 사항들의 상세한 내용은 생략함.

#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

## ■ 지정토론

주민참여형 공장지붕임대  
태양광발전사업

김승국 (주식회사 삼성이엔지 이사)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탄소중립을 해야 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실가스가 늘면  
지구온도 올라가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들이  
서서히 물 속에 잠기게 됩니다.  
Water World~



### 충청남도 에너지조례

#### 목적

- 「에너지법」 제4조 제2항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하여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 기본방향

- 충청남도지사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함
-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산업체·도민·시민단체·학계·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 에너지계획수립

-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
-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 보급관련 도지사의 책무]

구분	내용
공공	도지사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노력해야 함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 및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span style="float: right;">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살 거란 얘기</span>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span style="float: right;">에너지절약형 사무기기를 살 거란 얘기</span>
	4. 에너지시설 사용·관리의 진단 실시 <span style="float: right;">진단영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거란 얘기</span>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span style="float: right;">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span>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span style="float: right;">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게는 기회란 얘기</span>
	7.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span style="float: right;">친환경차 많이 팔릴거라는 얘기</span>
	8. 출·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②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함
③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관리시설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에 관한 교육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음	
④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을 향상을 위한 분산형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함	

건물	①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② 건축물에 단열재,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신·재생에너지,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전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수송	①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③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④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함
	⑤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 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산업	①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

▪ 도지사는 다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에너지시책 추진 지원 등의 도지사의 책무]

구분	내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1.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 및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보급
	3. 시·군의 에너지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①	4. 에너지전문기업 및 사업자 육성, 기술 사업화 촉진
	5. 에너지빈곤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
②	도민·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③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지분에 따라 확보할 수 있음
④	도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시범 및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원가와 전력거래 가격의 차액인 발전자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범지구 조성

▪ 도지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

▪ 도지사는 에너지시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너지위원회를 둠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살 기관 예기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에너지절약형 사무기기를 살 기관 예기
4. 에너지시설 사용·관리의 진단 실시	진단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거란 예기
5.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기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게는 기회란 예기
7.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친환경차 많이 팔릴거리는 예기

산업	구분	내용
		①
②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아산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이것이 기회인 기업은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arbon neutrality protects the earth.

## 충남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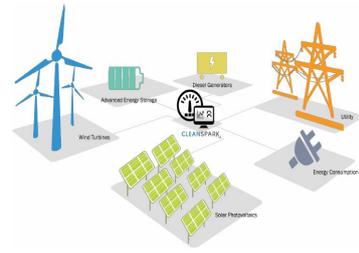
**<채움>**  
전력믹스에 석탄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채워 넣는다

**<비움>**  
비산업부문과 산업부문 모두의 에너지 소비량을 적극적으로 비워나간다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추진
- 시·군 에너지전환 선언
- 에너지전환 특화구역 조성
- 수소연료전지 발전 보급
- 재생에너지보급사업
-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 신재생 보급확대를 위한 한전 계통선 보강
- 유희부지 재생에너지 확대사업
- 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계획입지 도입 추진

**<키움>**  
충남의 에너지 문제를 풀어나갈 에너지시민과 에너지기업을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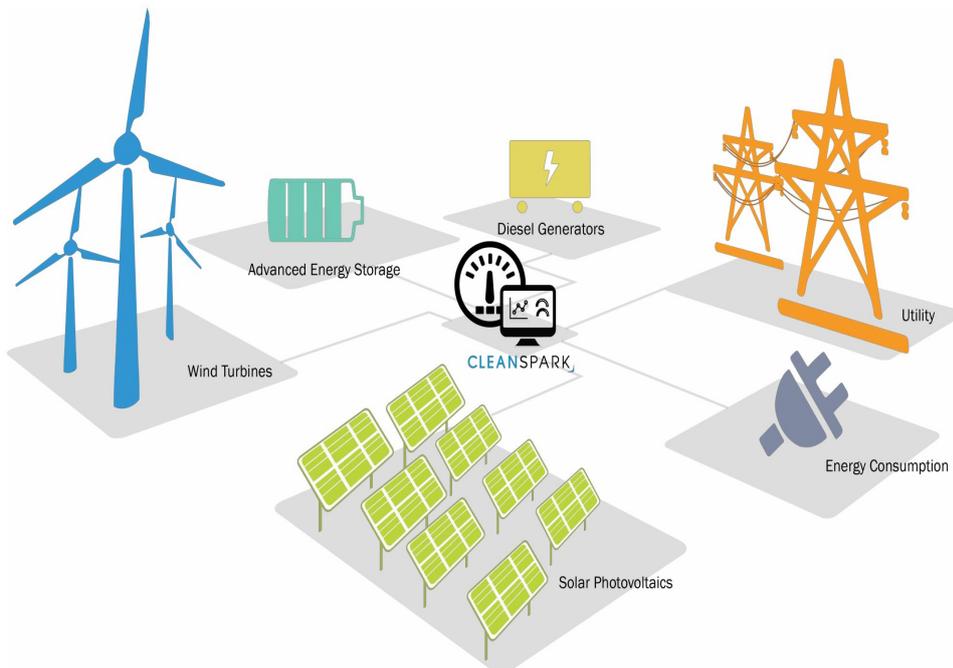
-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 전기 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화 사업
- 고효율 에너지사용 기기보급사업
- 사업장 에너지경영 효율화
- 스마트에너지시스템 확산 사업



- 에너지전환 교육 사업
- 에너지전환 추진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
- 에너지리빙랩
-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및 확대
-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기업육성
- 국민 DR 사업
- RE100산단 추진
- 발전사와 주민상생형 사업 추진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 도심형·농촌형·어촌형 등 주민참여형 특화사업
- 바이오가스 이용 수소생산 및 충전소 보급
- 버스연계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Carbon neutrality protects the earth.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국내사례

### [전남 신안군/ 신안태양광발전소]

신안군은 과거 염전으로 활용하던 폐염전부지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였다. 총 사업비의 4%인 128억원을 주민참여로 투자하고, 연간 27억원을 주민조합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투자 방식으로는 주민 3,145명(21년11월 기준)이 주민조합을 구성해 채권에 투자했다.** 주민이 투자한 128억원 중 90%는 정부 주민참여정책자금으로 조달했다. 2021년 11월 29일,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안군 지도읍에서 주민참여 이익공유 배당금 지급이 이뤄졌다. 지도읍 주민 약 3,5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1~35만 원이 지급됐고, 한 가구에서 최대 208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또한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지도읍 신규 전입자는 324명이다.

신안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전국최초로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등에 관한 조례」(이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신안군은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3조 군수의 책무). 또한 군수는 군민 또는 주민조합이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분을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용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조 지원 등). 주민참여지분과 관련하여 주민과 신안군의 참여 지분은 발전소 법인 등의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수익금은 '1004섬 신안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조례(제16조 주민참여 지분에 관한 사항 등)로써 규정하였다.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국내사례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개요

- 2018년 10월5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 자원인 햇빛, 바람, 조류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 모두에게 나누는 제도. 2021년 4월부터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자라도 4개 섬에 '햇빛연금' 지급. 2023년엔 임자도 추가. 2024년 비금도, 중도, 신의도에 지급 계획. 이 경우 전체 군민 4만 명 중 45%가 혜택.
- 대상 조례 최초 시행 이전 등록 주민. 조례 시행 이후 전입 주민은 만 40살 이하의 경우 전입신고날부터 100%, 만 50살 이하의 전입신고날부터 50%, 이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00% 권리 행사 가능. 만 50살 초과 주민은 전입 신고날부터 50%, 2년 뒤부터 100%.

### 주민 지분참여 가중치 산정표(태양광)



### 자라도 태양광 22MW의 경우(2020년 12월 상업운전 개시)

발전소	500m	1000m	
주민 수	88명	22명	166명
가중치	3배	2배	1배
1인당 채권지분율(%)	0.43	0.42	0.21
1인당 연간 지급액	234만원	156만원	78만원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국내사례



## [지방소멸에 맞서다]② "태양광이 효자여"...햇 빛연금으로 지역살리는 신안군

송고시간 | 2023-09-25 07:01

전국 최초 주민에 태양광발전 이익공유...줄어들던 인구 증가세, 경제 활성화 도움  
신안군민 28% 햇빛연금 혜택, 내년엔 46%로 확대...다른 지자체도 정책 벤치마킹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국내사례

### 나. 강원 태백시 /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2020년9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국내최초의 주민참여형 육상풍력발전소다. 주민들이 총 사업비 4%에 해당하는 50억원을, 강원도와 태백시가 총사업비의 8.8%에 해당하는 110억원(강원도 65억원, 태백시 45억원)을 투자하였다. 주민들은 매년 고정수익이 나오는 채권형방식으로 참여하여 연 8.2%의 투자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가덕산 풍력발전의 주민참여방식은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 혜택을 발전소 인근주민(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거주 중인 주민뿐만아니라 태백시 주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발전소 인근 원동마을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태백시민들로부터 17억원 규모의 펀드를 모집하고, 국가 정책자금으로 33억원을 지원받아 총 50억원 상당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소에 투자하였다.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며, 발전시설 부지내에 있는 원동과 발전시설 영향권 안에 있는 상사미동을 대상으로 우선 투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발전소로부터 직·간접 영향을 받는 태백시민과 지역법인에게 투자를 허용하고, 강원도 내 거주주민에게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국내사례

### 21MW태백가덕산풍력2단계 준공, 연간5만 MWh 전기생산

A 송정수 전문가 | © 승인 2023.06.23 13:20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연간 2만2,000톤 CO2 감축  
지난해 6월 착공, 유니스 4.2MW급 풍력터빈 5기 설치

[산업인뉴스 송정수 전문가] 국내 최초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인 태백가덕산 풍력발전사업이 2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이 투입됐고, 국내 기업이 참여해 풍력발전기 5대를 설치했다. 앞으로 연간 약 5만MWh의 전기 생산을 통해 약 2만2,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다.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국내사례\_가덕산 풍력발전소 2단계



## PPA제도란?

# RE100 기업 직접 PPA 관심 고조...전기 요금 올라 구매 매력 커져

✎ 이신형 기자 | ⓒ 승인 2023.07.14 17:07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 거세지만, 계약 실적은 아직 저조  
전문가들, 정부가 앞장서 재생에너지 공급부터 늘려달라 요구  
산업부, "재생에너지 부족 아니라 구매자와 판매자 이해 관계 불일치"

직접 PPA 제도는 전기 사용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장기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PPA 계약을 체결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1MW, 전기사용자의 수요는 300KW를 초과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보통 15~20년이다.

직접 PPA는 국내외에서 핵심적인 RE100 달성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직접 PPA를 체결하면 한전의 전력망을 사용하지 않고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전력망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비싼 사용료를 내고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야 한다.

##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주민참여형 공장지붕임대 태양광발전사업”



지붕임대 태양광 발전사업 + PPA제도 + 주민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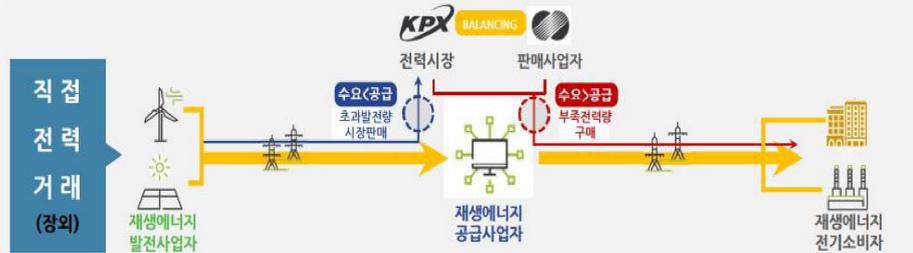
1. 발전사업자는 공장의 지붕을 임대하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진행한다.
2. 발전사업자는 공장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장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입한다.
3. PPA 단점 극복 : 지붕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장에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붕임대료 수익을 통해 한전요금과 PPA요금과의 가격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
4. 도와 시의 지원
  - 사업 관련 조례 개정 및 제정
  - 발전사업자의 이차지원
  -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지원, 탄소저감설비 도입지원
5. 아산만의 새로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 된다.

더 알아보자 PPA

02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 직접PPA 거래구조



직접전력거래(PPA) 구조



■ 직접전력거래(PPA) 구조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판매
-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을 전기소비자(실사용자)에게 판매
- 이때,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구매

03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 **직접PPA**

참여자격 및 절차



Carbon neutrality protects the earth.

참여자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MW를 초과(합산 또는 단독)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
- 참여가능 발전원 :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등 6개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전자 등 관련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의 상시 근무인력을 둔 사업자



전기사용자

- (직접구매자) 수전설비 300kVA 이상 설치자
- (한전고객) 계약전력 300kW 일반용·산업용(을) 고객

03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 **직접PPA**

참여자격 및 절차



Carbon neutrality protects the earth.

참여절차



- 전력공급계약 : 직접전력거래계약 이행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공급사업자 간 전력공급 계약
- 직접전력거래계약 : 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재생E 전력거래에 대한 계약
- 직접PPA 망이용계약 : 직접PPA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

더 알아보자 PPA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 **직접PPA**

## 기대효과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

## | 직접PPA제도

(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 직접 PPA 기대 효과

다양한 거래 형태로 소규모 사업자의 제도 참여 가능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전기신사업자)의 역할 확대 가능

RE100 이행 수단 확대를 통한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직접PPA 활성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제도 참여자의 다양한 선택권 제공

발전(1):소비(1) | 발전(1):소비(N) | 발전(N):소비(1)

Carbon neutrality protects the earth.



#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

## ■ 지정토론

청년 기업인의 시야를 통해  
살펴본 경제위기 속 아산

김진배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회장)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청년 기업인의 시야를 통해 살펴본 경제위기 속 아산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회장  
김진배

아산시는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 통합 이후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유치와 제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힘입어 성공적인 지방 도시의 길을 걸어왔다.

아산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인구는 2011년 27만 5천 명에서 2023년 현재 36만 5천 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가적으로 문제 시 되는 지방소멸에 아산시는 비켜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불안 요소가 분명하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차치하고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인구의 비중이 상당수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자리 지표에서 중요한 30대 초반 인구 비중이 2011년 대비 -2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충격적이다.

실제로 아산시 평균연령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세대별 인구 증감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2011년 대비 2020년 기준 0세~39세 인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부정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도 제조업 확대를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당장에 제조업의 연락처나 비중을 줄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제조업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중요하다. 아산시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1,124개에 달하며 종사자 수도 2020년 기준 87,912명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다만 제조업 일자리는 안전한가? 라는 물음에는 의문이 든다.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 등 작금의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들이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이야기하고 있다.

2024년, 경제불황을 전망하는 보도들이 등장하고 실제 지표로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내외의 부정적 정세가 지역 제조업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발 빠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회장으로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교류하며 지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청년들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급격히 축소된 뒤의 아산을 걱정한다.

시장의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구매관리지수'에서 한국은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는 2004년 4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도농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조업 기반 도시인 아산시는 국내외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살필 필요성이 있다.

아산시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아산에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청년들의 고민이다.

2021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발행한 『제조업 위기와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 고용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보면 청년인구의 유출이 일반 고용위기 지역에서 더 빠르게 감소하며 청년 취업자 비중이 급감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자의 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인구소멸 예정지역에 들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먼저 제조업 위기 시대를 정확히 정의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산시 차원의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당장 내년 경제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또 국가의 준비가 철저할지라도 지자체만의 해결 방법과 전략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 미래 동력 사업을 찾고 지역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경제, 바이오,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신사업의 육성에 더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등 대안 경제의 육성이다. 사회적경제는 기본적 정의와 역할을 제외하고서도 늘어가는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복지 수요 속에서 마땅히 필요한 자산이다.

편향된 이념의 시야를 넘어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산시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선진사례로 주목받으며 대안 경제로서 자리 잡는 중이었기에 작년과 올해의 분위기는 안타깝다.

산업의 가치를 단기적인 효율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 특히 36만의 시민의 미래가 직결되어 있다면 더욱이 그렇다. 효율과 단기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비상 상황에만 적용되는 안전관리, 복지, 사회적경제도 비용으로만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를 경제 위기 상황 속 대안으로 인지하고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요구와 고민을 시의 미래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년 기업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바라볼 때 행정과 정치는 아직 멀고 어려운 대상이다.

이를 소통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 미래세대로서 청년이 가지는 역할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청년위원회라는 청년 참여기구에서부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지역 청년을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취업과 창업환경이 만만치 않은 지금의 현실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강제할 수는 없다. 아산시가 또 지역의 정치가 조금 더 청년에게 다가서야 한다. 청년이 귀한 시대는 이미 도래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지자체만이 소멸 위기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확신한다.



# 현장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산의 과제

## ■ 지정토론

### 아산시 문화예술 정책 방향 제안

송용배 (식생활네트워크 아산 대표)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 아산시 문화예술 정책 방향 제안

식생활네트워크 아산 대표  
송용배

## 1. 들어가는 말

모든 문화와 예술의 완성은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과한 문화 예술만이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 배려와 협력, 상생의 방법을 평화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문화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조급함과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 문화예술의 본질을 훼손한 채 매년 일회성 행사에 머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제 발제는 2023년 아산시 문화예술을 축제와 행사를 중심에서 살펴보고 시민들이 행사의 객관적 관람자가 아닌 직접 축제의 주체가 되어 참여함을 물론 아산시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예술문화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 II. 2023년 아산시 월별 문화예술 행사 현황

### 1. 발제 방향

- 1). 아산시민 모두와 만드는 아산의 문화 예술
- 2).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 예술 발굴과 활성화
- 3).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 아산 구현

2023년 아산시 월별 문화예술 행사를 표현 <표 1> <표 2> <표 3>의 내용과 같다.

### <표 1> 아산시 문화예술사업현황

기관명	사업명	비고
문화관광과 (10건)	아산시장기 품물대회	-
	문예지 발간	-
	찾아가는 어르신 공연	(도비보조)
	아산지역문화행사 활성화	(도비보조)
	아산시클래식공연 활성화	(도비보조)
	제3회 대한민국 아산미술대상전	(도비보조)
	전국주부가요열창	(도비보조)
	전국난타경연대회	(도비보조)
	문화공간 스토리 힐링콘서트	(도비보조)
	청년페스티벌	(도비보조)
아산문화재단 (2건)	2023 아산문화재단 ON(溫)스테이지	-
	문화예술행사 지원	-
계	16건	

<표 1>을 아산시 문화관광과와 아산 문화 재단이 문화 단체 지원 사업현황으로 아산시장기 품물대회는 한국예총아산지회 국악협회 문화지 발간은 문인협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된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다.

<표 2> 시민 대상 사업

기관명	사업명	비고
문화관광과 (4건)	찾아가는 음악선생님 지원	-
	마을축제 명소화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오감만족'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아산문화재단 (9건)	배방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	-
	생활문화축제	문화원 공동
	지역작가 및 신진작가 초대전시	-
	초대작가 기획전시	-
	예술교육프로그램 그림책 공작소	-
	문화드림학교	-
	은행나무길 소소한 콘서트	-
	신나는 교실극장	-
	전국 청소년 연극제	-
온양문화원 (3건)	문화강좌	-
	문화탐방	-
	아산시민역사문화교실	-
계	16건	

<표 2>에서 시민 대상 사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찾아가는 음악 선생님 지원, 마을 축제 명소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생활문화 축제, 은행나무길 소소한 콘서트, 전국 청소년 연극제 등이 있다. 이런 예술 행사들은 직접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표 3> 2023년 아산시 행사/축제 일정표

번호	행사명	일정 (월일)	장소	참여 단체	장르	예산
1	1회 아트벨리페스티벌 100인100색	2022. 12.01.~ 2023 01.12.	신정호일원카페	왕열 외 4인	미술 전시	
2	2023신년음악회 The Magic 팬텀&퀸	1. 14	경찰인재개발원 차일혁홀	김봉미(지휘자)외4인	음악회	
3	아트벨리 아산제1회 아산온천 벚꽃축제	04.08	온천광장 일원	국악예술단 아산시민 관악단 아산시립합창단 이창환밴드, 라온코르셋, 쿨김성수	공연 행사	
4	제62회 아트벨리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04-28~ 04-30	이순신 종합운동장, 현충 사, 온양온천역,	1회전군군악의장페스티벌 특별공연, 체험, 백의종군길,	공연 행사	
5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공연	06.10	아산경찰인재개발원	아산문화재단	음악회	
6	찾아가는 문화활동	07.09	온양온천 시장 광장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아산지회	9개지부 행사	
7	202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07.14	아산아트홀	아산시교향악단	관현악	
8	충청남도 국악제	07-23	아산아트홀	국악협회 아산시지부	국악	
9	2023년 아산 연예협회 정기 콘서트	08-05	은행나뭇길	아산 연예협회	콘서트	
10	202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심봉사 떴다)	08. 8	온양온천역 무료급식소	충남전통음악연구소	창극	
11	아트벨리 아산 신정호SUMMER FESTIVAL	08.11~ 15	신정호 야외음악당일원	아산시. 아산문화재단 온양문화원	음악제 뮤지컬[영 웅]	
12	아트벨리 아산 제1회 외국인K-트롯가요제	09.2	신정호야외 음악당	대전문화방송	가요제	
13	아트벨리 아산 제5회 전국 주부가요제	09-03	신정호야외 음악당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아산지회	가요제	
14	아트벨리 아산 제1회 국제민족무용축제	09.10	신정호야외 음악당	아산시무용단	무용	
15	아트벨리 아산 제10회보문사 희망음악회	9.16	보문사 특설무대	선학원 보문사	음악회	
16	202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창극	9.17	현충사	우리 소리 창극단	창극	
17	아트벨리 아산 제2회 신정호 국제아트 페스티벌100인100색전	9.22 ~ 2.25	신정호 카페갤러리	아산시	미술 전시	

18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재즈 페스티벌 with 자라섬	10.7 ~9(3일)	신청호 야외음악당	주체 아산시 주관 문화재단	재즈 공연	
19	2023년 아트밸리 아산 제34회 설화예술제	10.13 ~ 15	은행나무길	아산예총(9지부)	전시 버스킹	
20	아트밸리 아산 제22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10.20 ~22	외암마을 및 저잣거리일원	아산시/(사)외암민속마을 보존회	공연	
21	현충사 달빛야행	10.21 ~.22	현충사 경내	아산시/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아산문화재단	공연 전시	
22	2023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10.26 ~29	온양관광호텔 일원	행정안전부 (주최:충청남도,아산시)	전시학술 대회체험	
23	아트밸리 아산 제1회 고불청소년 국악제	11.04	경찰인재개발원 안병하홀	아산시/(재)아산시청소년재단	경연/ 공연	
24	2023년 지중해 문화 축제	11.04	지중해마을	아산시후원 주관협동조합와트	전시 공연	
25	아산 제1회 e스포츠 문화산업 축전	11. 4.	아산시청소년교육 문화센터	아산시후원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산시장배 e스포츠대회	
26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영인산 단풍축제	11.05	영인산수목원	주최:아산시 주관:설관리공단	음악회 산림체험	
27	2023년 아트밸리 아산 제3회 아산시장기 전국 난타 경연대회	11.05	평생학습관 대강당	아산시후원 아산시여성풍물단	경연대회	
28	전국청소년 합창제	11.12	아산아트홀	주관 아산시	합창제	
29	202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11.15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충남도아산시후원 주관:아산시오페라단	오페라공연	
30	제1회 이순신 순국제전 (700명 운구행렬)	11.17~19	온양민속박물관, 온양온천역, 현충사	아산시	전통 장례 퍼포먼스	
31	아트밸리아산 Show me the Light - 빛을 보여줘	11.22~ 12. 2	배방 온생활문화센터	주체: 도 아산시 주관 예술아우름	청년작가 장애인미술전시	
32	제2회 아트밸리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	12.16~17	경찰인재개발원	주관아산문화재단	콘서트	

<표 3>의 문화 행사를 보면 전시, 음악회, 공연 등이 주조를 이루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운 1회 대회 행사가 8개나 새롭게 시행되어 눈에 띈다.

### III. 아산시 문화 예술 정책 기본 방향

#### 1. 문화 예술을 간접 체험이 아닌 직접 참여

AI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혁명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창조적 신세계를 구현할 것이다. 그런 신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미래는 반드시 기계 문명에 종속되어 감시를 받거나 검열당하지 않는 민주적 유토피아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문화예술의 체험은 필수적이다.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의 평화로운 감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시민의 자질과 품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산시 문화 예술 정책은 문화예술을 관람만 하는 대상이 아닌 스스로 그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1) 아산시민 모두와 만드는 아산의 문화 예술

아산 시민은 누구나 지역 문화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1) 마을 단위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소규모 공동체 지원

- 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을 문화예술 동아리 만들기
- ②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주민주도 형 마을 축제 활성화
- ③ 아산시 문화예술 동아리 연대 초청 공연
- ④ 아산시 축제기간 동안 합동 발표 기회 마련

##### (2) 시 지원을 받는 문화 예술 단체 문화 민관 거버넌스<sup>1)</sup> 체제를 구축

- ① 분산 개최되고 있는 단체 행사를 통합 운영 체계 마련
- ② 주체적 활동을 위한 예산, 홍보, 공연 장소 등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 ③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대상과 방식 재설계.
- ④ 타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지역 문화 예술의 확장 방향 모색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 아산온천관광지 벚꽃축제, 맹 정승 축제, 은행나무길 축제,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현충사 달빛 야행, 아산 학생연극제, 설화 예술제(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등의 행사를 타지역과 연계하여 실시할 방법을 모색한다.

##### 예)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군 매현 윤봉길 평화 축제(매년 4월 29일 전후)와 공동 참여 방안 모색  
천안 아우내 봉화제 연계 횃불 행사 재현, 추모 가요제 공동 개최 등 행사 다양화와 홍보 전략 필요

##### (3) 행사의 다양화와 혁신을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

- ① 아산시가 주체하는 축제 및 행사를 주관 단체와 조율, 조정, 평가
- ② 필요시 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업 혁신 제시

1) 민과 관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정책의 기획과 실행에 가담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 네트워크 구축.

- ③ 민관이 협력하여 중앙 정부나 도,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단체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이 쉽게 응모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 ④ 미래 지향적 문화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 제공
- ⑤ 기타

(4) 찾아가는 음악 선생님, 1인 1악기 등과 같은 시민 참여 문화예술 사업 확대

- ① 아산 시민 예술 동아리 활성화
- ②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전문성 함양
- ③ 노인·장애인·탈북민 등 문화소외층 예술교육 참여 기회 제공
- ④ 발표회를 통한 자아실현과 민주시민 의식 고취
- ⑤ 문화예술인 강사 고용 효과,

**2. 학생들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시켜 미래 지향적 문화예술 방향 모색**

최근 문화예술의 경향을 보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장르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듣는 미술과 보는 음악, 만지는 공연과 공감각적 건축 등 문화예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호흡하면서 부단히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주인공은 바로 학생들이다. 아동부터 청년까지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갖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1) 문화예술제 학생 참여 확대 방안 마련

(1) 교육청 학교와 공유

- ① 지역 축제에 참여할 학교별 축제 참여 팀 공모 후 예산 및 강사 지원
- ② 지역별 학교 축제 공동 개최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
- ③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기 부여  
축제 중 각종 대회를 실시하여 수상, 봉사활동
- ④ 학생 축제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대표가 민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여 협의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예) 이순신 축제 기간 학교별 퍼포먼스 등 학생들 스스로 지역 문화예술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⑤ 4.28 축제 주간  
나아가 학생들 스스로 아산시 전 학교 재량 휴일, 학원 휴강 등으로 축제 참여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3. 관광 사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실현**

아산시는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사업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는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고 한다. 아산시는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질적 양적 성장을 보여 왔다<sup>2)</sup>. 이런 축적된 역량을 발휘하여 수

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산을 방문하게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아산관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 관광객들을 위한 상시 공연장 확보

온양관광호텔, 온양제일호텔, 경찰인재개발원, 아산아트홀, 신정호 야외음악당, 온양민속박물관, 온양온천역, 현충사 경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지중해마을, 외암마을, 은행나뭇길 등 등에 관광코스를 만들어 맞춤형 공연장을 확보하고 <표3>을 잘 조율하여 계절별 월별, 시간별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공연을 실시한다.

2)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외국 관광객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표 3> 이외에도 지역에는 문화예술 단체가 많이 있다. 이런 단체들이 연습한 기량을 숙소나 일정한 장소로 찾아가 공연할 수 있는 맞춤형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공연과 함께 은행나뭇길 먹거리 방안 합하여 축제의 위상을 높이기

#### IV. 맺음말

이태리 배네치아 여행 중에 산비달 성당에서 콘서트를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날씨가 더웠지만 에어컨도 없는 작은 성당에 지역의 무명 연주자가 들려주는 음악을 들으며 이국의 정취에 취했던 순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

우리 아산도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하여 고급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

2) 충남도 15개 시군별 문화예술단체 (2021년~2023년 10월말 기준)을 보면 76개 문화예술단체 중 계룡3, 공주4, 금산1, 논산3, 당진2, 보령1, 부여2, 서산5, 서천2, 아산17 예산4, 태안1, 천안19, 홍성8









